

‘20만명 왔다’... 순천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성황

비전선포식·애니메이션 드론쇼
2025대 드론 가을 밤하늘 수놓아
미카엘 마린 총괄 디렉터 참석
비즈니스 마켓 55개 기업 방문

‘2024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올텐가’ (All Content Garden))이 지난 3일 애니메이션 드론쇼를 끝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

올텐가는 정원과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누적 관람객 20만 명을 기록하며 문화산업 메카 순천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알렸다.

올텐가의 대미를 장식한 비전선포식과 애니메이션 드론쇼는 ‘콘텐츠 선물상자’ 컨셉으로 꾸며진 오천그린광장 중앙무대에서 개최됐다. 일방향으로 바라보는 무대가 아닌 360도가 관람석이 되는 색다른 무대 연출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창의적 영감과 상상력이 담긴 콘텐츠 상자가 열리며 본격적인 피날레 행사가 시작됐다. 기존 딱딱한 형식을 완전히 탈피하고 뮤지컬 연출 흐름을 활용해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순천’ 비전을 선언했



‘2024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이 지난 3일 오천그린광장에서 폐막한 가운데 2025대의 드론이 다양한 캐릭터를 하늘 위에 수놓는 애니메이션 드론쇼를 펼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다.

이어진 2025대의 애니메이션 특화 드론쇼는 각각의 OST에 맞춰 돌리, 까치, 율리를 찾아서 등 다양한 캐릭터를 하늘 위에 수놓아 역대급 장관을 연출했다. 아

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공감하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피날레 행사에만 10만 명의 관람객이 모였다.

올텐가의 성공 비결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전시·체험행사와 차별화된 다

양한 콘텐츠로 꾸며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순천시는 자칫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전시·체험행사로 풀어냈으며, B2C 행사뿐만 아니라 B2B에 집중된 비즈니스 마켓을 통해 기업들이 몰려들고 순천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윤태호 작가와 에릭 오 감독이 전하는 콘텐츠 산업의 미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전국의 예비 애니메이터와 작가 지망생들의 발걸음까지 사로잡았다.

순천시는 또 실내 전시장을 벗어나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정원에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시킨 차별화된 매력으로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었다. 6만 평 정원에 얹어진 열기구, 캠프닉, 캐치! 티니핑 싱어롱쇼, 애니메이션 상영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각색으로 즐기는 새로운 광장문화를 선보였다는 평도 이어졌다.

올텐가 일환으로 운영된 비즈니스마켓에는 국내외 콘텐츠 기업 55개사(국내 35, 해외 20)가 방문했다. 순천시 투자

향 기업을 비롯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베트남 등 국내외 기업들은 네트워킹 파티, 기업 설명회 및 피칭, 1:1 비즈니스 미팅에 참가했다.

올텐가 행사장을 찾은 프랑스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주관 조직위원 미카엘 마린 총괄 디렉터는 “순천에 와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굉장한 경험이었다. 다시 한번 순천을 또 찾고 싶단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올해 첫 회로 개최하는 콘텐츠 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이 즐기러 와서 고맙다. 여느 대도시와 달리 정원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행사라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순천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인했다”며 “앞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에 기반한 교육, 기업 유치 등을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기업, 학생, 작가들이 순천에 모일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

순천시, 국내 여름휴가 여행지 4위

여름휴가 여행만족도 조사
볼거리·미식 체험 만족도 높아

순천시가 ‘2024 여름휴가 여행만족도 조사’에서 기초자치체 중 4위를 차지하며 TOP 5에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전국 기초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1박 이상 여름휴가를 다녀온 1만7000명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순천시는 매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여행객들은 순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독특한 미식 체험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은 체험형 콘텐츠를 도입해 ‘즐기는 정원’으로 변모하며 관광객의 이목을 끌었다. 우주 테마를 접목한 스페이스 브릿지와 스페이스 허브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고, 어린이를

위한 두다하우스와 시크릿어드벤처 등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순천만의 다양한 미식을 홍보하여 국내외 미식가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 순천 맛집들이 관광객들에게 독창적인 음식 경험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한편, 일부 여름 관광지에서 지적된 ‘물가·상도’와 같은 부정적 평가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순천시가 더욱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낮은 물가와 긍정적인 여행 환경 덕분에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차별화된 관광 자원과 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더 나아가 ‘정원문화도시’로 발돋움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독사 예방 위한 기초수급자 1인 가구 전수조사

순천시는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를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 6402세대로, 건강 상태 및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2023년 41.4%(1413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돌봄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시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고독

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I 안부확인 시스템을 통한 밀착 관리를 우선 시행하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의 필요에 맞춘 개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고립되지 않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AI 안부전화 ‘순천 케어콜’, 전류·조도 변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 장기간 스마트폰 미사용 시 보호자에 알람이 전송되는 ‘순천살핀안녕’ 앱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1일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와 전남낙농협동조합은 순천시 도사동에 백미(10kg) 70포(2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순천시 제공

농협 순천시지부·전남낙농협, 도사동에 쌀 70포 기부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와 전남낙농협동조합이 지난 1일 도사동의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10kg) 70포(2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백미는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및 독거노인 등에 전달하여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

주철호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동준 전남낙농협동조합장은 “오늘의 기부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과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동호 도사동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부로 온기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 위한 사전대비 돌입

순천시는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025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습적인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보호대책과 시설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친환경

제설제 및 염화칼슘 340톤을 사전 확보하여 읍면동 및 제설 취약 구간에 배치 완료했으며, 제설장비 67대를 준비하여 제설 차량의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제설 전진기지 6곳을 점검 및 정비했다.

또한, 도로보수원 등 300여 명의 제설 인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었다.

이와 함께 동파로 인한 상수도 긴급복

구를 위한 근무태세를 유지하도록 4곳의 상수도대행업소와 함께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를 사전 확보하여 긴급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은 전열기구 관련 화재가 빈발하므로 전열기구 사용이 많은 복지시설, 고시원, 쪽방 등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와 협력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